

‘日 수출규제’ 임박...광주·전남 대책 부심

시·도, 피해신고센터 운영, 안정자금 등 자구책 마련
상시 연락체계 구축 통해 지역업체 피해 최소화 총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전략 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한국 제외 결정이 임박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배제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기·전자기기, 화학·농수산물 등 지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종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와 도는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출 다변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일본수출 규제 관련 사태 전개 추이에 따라 상황 판단 및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은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지원반 등 3개반으로 나뉘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에 기업 지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원스톱 지원센터’에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접수 창구를 설치한다.

현재까지 광주에 피해사례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및 확대될 전망에 따라 전 산업분야 피해를 접수하고 실태확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2,3차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보증제도 등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이 발생했을 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 연장하는 등 지방세의 고지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고용진흥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맺어서 매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해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를 통해 도출된 피해신고센터 운영, 경영안정자금 확보, 수출 다변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분야 경우 전복, 김, 톳, 파프리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들 상품의 수급 부족시 피해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일본 수출 규제의 현실화를 대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국, 베트남 등 수출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대일 수출 지역업체와의 상시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최소화해 전력을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말 바꾸기’에 따른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국일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또 각 분야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국제적 규범마저 저버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진정한 국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 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김다미기자



‘각자의 자리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광주·전남 향후 10년 폭염 ‘위험수위’

나주·강진 등 18개 기초지자체 위험도 ‘매우 높음’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자체가 향후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폭염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요구되면서 지자체별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 시나리오(RCP 4.5)를 활용해 전국 229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면 폭염으로 분류한다.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위험도는 하루 최고기온 등을 반영한

‘위해성’, 65세 이상·독거노인 비율 등을 고려한 ‘노출성’, 도시화 면적 비율·인구당 응급의료 기관 수 등을 반영한 ‘취약성’을 고려해 평가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는 기존 연도인 2001-2010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은 19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광주·전남은 이 가운데 기초지자체 18곳이 포함되면서 위험수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광역 지자체별 중 3위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위험도는 하루 최고기온 등을 반영한

도 동·서·남·북·광산구 5개 구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지자체는 2001-2010년 69곳에서 2021-2030년 1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1-2030년에 폭염 위험도가 ‘높음’ 이상인 기초 지자체는 전체의 55%에 이른다.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하루 최고기온이 상승하고 고령화에 따라 65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시화로 인해 열을 흡수하는 숲이 사라지는 것도 폭염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임채만기자

‘전남행복지역화폐’ 22개 전 시·군 발행

도 공동브랜드...상권 활성화 기대

‘전남행복지역화폐’가 올해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발행된다.

전남도는 1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만 유통하는 ‘전남행복지역화폐’를 연내에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전남지역 상품권의 공동 브랜드다. 시군별로 ‘00사랑 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상품권에 함께 표기돼 대외 신인도 향상과 함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전남지사과 시장·군수 간 지역상품권 발행업무 협약을 해 도비 15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 6월에는 ‘전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420억 원을 발행했으나 올해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약 1천555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7월 말 현재 16개 시·군이 발행하고 있으며 오는 추석 명절까지 모든 시·군에서 발행키로 했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내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제의 순수익을 포함시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부분의 시·군은 지류 형태로 발행해 판매·운영하고 있으나 광양시와 영광군은 전자카드와 모바일 등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 방식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농협 등 해당 시군 판매처에서 지역화폐를 구입해 사용하고 상점에서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시·군별로 최대 10%까지 할인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볼 수 있다. 현재 순천시 5%, 나주시 8%, 완도군 10%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민행복시책으로 추진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활용에 필요한 도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Gold Class

8월 2일(금) GRAND OPEN

화정 골드클래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유스퀘어

G.goldclass.co.kr

GRAND OPEN 경품이벤트 SPECIAL

8월 2일 선봉기 20대
8월 4일 스타일러, 자전거 등 생활가전용품
모델하우스 방문객 대상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마트·신세계·이마트·신세계

오피스텔 상등고객
선착순 장우산 증정

광주 중심에서 만나는 최고 클래스의 주거명품 & 오피스텔!

화정 골드클래스만의 프리미엄 자부심 6

광주 중심, 무등산 조망 초고층 최고급 주거단지	도보 2분 농성역 유스퀘어 등 빠른교통	신세계백화점, 서구청, CGV 등 원스톱 생활인프라
광주서초, 화정중, 서석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	4베이, 팬트리, 가변형벽체 등 특화 평면설계(방문객 제외)	휘트니스, 키즈룸, 여성전용주차장 단지내 명품 편의시설

아파트 84㎡ A·B / 128㎡ / 230㎡ 오피스텔 84㎡ / 59㎡ A·B

문의 062) **227-2278**

시영 금화건설(주) | 동흥시공 | 금화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본 아파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경원로 250 (N)백화점 맞은편